

국내 주요 경제 지표가 취업자 증감률에 미치는 특성요인 분석

이현주*, 김희철**

요약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증감률 패턴과 제반 경제활동요인으로써 주요경제지표 간의 영향에 관하여 분석, 고찰을 수행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한 본 연구의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업(증감)률 및 월 평균 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업률 및 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악영향을 주는 인자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선행 경기 종합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긍정적인 영향인자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었다. 즉, 선행 경기 종합지수가 높으면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물가가 높아지면 취업의도가 살아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비유의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증감률도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어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회변인 보다는 가계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변인이 더욱 더 영향력이 큰 인자로 나타나고 있다.

The Analysis of Special Factors for Major Economic Indicators on Increase and Decrease for the Percentage of Employment

Hyun-Joo Lee*, Hee-Cheul Kim**

ABSTRACT

In this study, increase and decrease for percentage of employment of economic activity patterns and various major economic indicators about the impact of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 in this stud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unemployment percentag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pattern, the negative impact on pattern of increase and decrease for percentage of employment are more likely to have been analyzed. In other words,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and unemployment pattern for pattern of increase and decrease for percentage of employment was estimated to be adverse prognostic factors. In addition, pattern of preceding business composite index and the consumer price index showed a positive factor, but they are not significant variables. In other words, preceding business composite index, higher total employment rate for a positive impact on the employment of higher commodity prices have also risen, but also a positive impact, but when compared with other factors, they are not significant variables. In addition, pattern of composite stock price index of percentage of employment adversely pattern, but showed not significant factor. The pattern of percentage of employment has been found to affect the very factors that are emerging as not. Finally, rather than social factors in the immediate and practical household variables are appearing more and more influential factor.

Key Words : Percentage of Employment, Economy Indicators, Logistic Regression model, Social factors, Influential factor.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yihyunjoo@paran.com)

** 남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 제1저자(First Author) : 이현주 · 교신저자(Correspondent Author) : 김희철

· 접수일(2011년 2월 28일), 수정일(1차 : 2011년 4월 28일), 게재확정일(2011년 5월 2일)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예상과 반대로 작년에 사상 최대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한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작년(2010) 대졸 이상 실업자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34만6천명으로 35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2000년 대졸 이상 실업자가 23만 명이었으므로 10년 새 무려 11만6천명이나 증가한 것이다[1].

작년(2010년) 12월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11월 취업자 수는 2410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30만3000명 증가하며 2개월 연속 30만 명 이상 늘어났다. 실업률은 3.0%로 떨어졌고, 청년실업률(15~29세)도 6.4%로 하락했다.

이처럼 각종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민들의 체감 고용을 나타내는 지표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11월 실업자 수가 73만7000명으로 전월(83만2000명)대비 9만5000명 감소한 것과 달리 서민들이 느끼는 사실상 실업자 수(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구직 단념자+18시간 미만 취업자)는 401만 7000명으로 상승했다. 사실상 취업자 수는 지난 10월 394만6000명을 기록하며 5개월 만에 400만 명선 아래로 내려갔으나 11월 다시 400만 명대로 복귀했다[2].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증감률패턴과 주요 경제지표의 인과관계를 조사, 분석함에 있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고자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종속변수의 국면을 2개로 분류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방향성을 관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취업자 증감이 전월 대비 ‘+’일 경우와 ‘-’일 경우로 발생할 때, 각각의 경우에 주요경제 지표들은 어떠한 관계성을 나타내는지를 고찰 하고자 하는 때에 가장 적합한 회귀모형이라고 사료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경제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취업자 증감률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확률적인 접근 방법으로 조사, 분석을 실시한다. 이것은 경제 지표 및 취업률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이러한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취업률에 기여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고찰하기 위함이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고자 한다. 취업자 증감률이 전월 대비 ‘+’인 경우에는 ‘1’로 ‘-’인 경우에는 ‘0’으로 변수 값을 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때 국내 주요경제지표로 전월 대비 실업(증감)률(전국, %), 전월대비 월평균가계소득 증감률(2인이상 가계, 전국, %), 전월대비 선행(경기) 종합지수(2005=100, %),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2005=100, %) 전월대비종합주가지수 증감률(연.월.중평균, 1980.01.04=100, %)을 사용하였다.

1.2 선행연구

이 분야에서 채창균과 김태기[3]은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 전공과 같이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요인들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학교의 교육적 지원 노력이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해외어학연수, 자격증 취득 등과 같은 취업준비 노력은 그다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남기곤[4]는 프라빗(Probit) 분석을 통하여 미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력과 연령, 기혼 여부와 같은 인적 속성은 미취업 혹은 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하지만, 직업훈련 경험이나 거주 지역의 실업률 그리고 성장단계의 가정환경은 미취업이나 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표 1. 선행 연구
Table 1. Leading research

연구자	논문제목	분석방법 및 결과
채창균과 김태기[3]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요인 분석	가구소득이나 출신대학, 전공과 같이 대학생 스스로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요인들이 영향 큼
남기곤[4]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프로빗(Probit) 분석결과 학력과 연령, 기혼 여부와 같은 인적 속성은 미취업 혹은 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함
엄동욱[5]	중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아지고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짐
김희철[6]	패널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직업별 취업자 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	패널 데이터모형 적용 결과 취업자수는 특정 직업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음
이현주와 김희철[7]	패널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취업자 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	패널 데이터모형 적용 결과 취업자 수는 특정 지역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음

또한 엄동욱[5]은 ‘중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 논문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지고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가구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지출도 중 고령자 취업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김희철[6]은 ‘패널 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직업별 취업자 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 취업자 수는 특정 직업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

였고 이현주와 김희철[7]도 ‘패널 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지역별 취업자 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에서도 취업자 수는 특정 지역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II. 연구 가설 및 모형

2.1 가설의 설정

취업자 증감률 패턴은 제반 경제상황과 관련된 정보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련정보 중에는 본 연구의 관심대상인 국내 주요경제지표들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주요경제지표들은 취업률 증감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경제지표들이 취업률 증감 패턴과 관련성을 맺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이에 따라 표 2 와 같이 주요경제지표들 각각에 대한 추정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 가설의 내용 중 언급되고 있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란 취업자 증감률 패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증감)율이 전월 대비 양(+)을 나타내는 경우의 영향이 긍정적인 영향을 의미하고 전월 대비 음(-)을 나타내는 경우의 영향은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표 2. 가설 설정
Table 2. Setting up hypothesis

가설 1	실업(증감)율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가설 2	월평균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가설 3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가설 4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가설 5	종합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2.2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제 가설을 검증,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아래와 같다.

$$\widehat{\log\left(\frac{p_i}{1-p_i}\right)} = \hat{\beta}_0 + \hat{\beta}_1 URC + \hat{\beta}_2 AMH + \hat{\beta}_3 PBC + \hat{\beta}_4 CPR + \hat{\beta}_5 CSP$$

단, $\hat{\beta}_0$: 절편, $\hat{\beta}_i$ ($i=1,2,3,4,5$): 계수

p_i : 해당 독립변수가 i 범주에서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이 ‘+’에 소속될 확률.

$1-p_i$: 해당 독립변수가 i 범주에서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이 ‘+’에 소속되지 않을 확률, 즉 ‘-’에 소속될 확률

URC(전월대비실업(증감)률)
: unemployment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AMH(전월대비 월평균 가계소득 증감률)
: average monthly household income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PBC(전월대비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
: preceding business composite index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CPR(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 consumer price index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CSP(전월대비 종합주가지수증감률)
: composite stock price index rate of increase and decrease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본 연구모형의 종속변수인 $\widehat{\log\left(\frac{p_i}{1-p_i}\right)}$ 는 로그 승수(odds)로써 각 독립변수들이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이 ‘-’에 속할 확률에 대한 취업자 증감률이 ‘+’에 속할 확률의 비율을 로그로 나타낸 것이다. 종속변수 $\widehat{\log\left(\frac{p_i}{1-p_i}\right)}$ 에 대하여 독립변수들은 ‘+’ 또는 ‘-’의 부호로 그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것은 독립변수가 2개의 분류 즉, ‘+’ 또는 ‘-’의 그룹 중 다수 그룹인 취업자 증감률이 증가인 경우에는 즉, ‘+’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의 오즈비율(odds ratio)로, 소수 그룹인 취업률 ‘-’에 속할 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의 오즈비율로 그 값이 표시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이 ‘+’으로 분류되는 그룹은 큰 집단, 즉 집단 1로 분류되어 있고, ‘-’로 분류되는 그룹은 작은 집단, 즉 집단 2로 분류되어 있다.

2.3. 분석자료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증감률 패턴과 주요 경제지표의 인과 관계를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고자 한다. 취업자 증감률이 전월 대비 ‘+’일 경우에는 ‘1’로 ‘-’인 경우에는 ‘0’으로 변수 값을 정하여 이를 종속변수로 놓고, 이때 독립변수로 국내 주요경제지표로 전월대비 실업(증감)율, 전월대비 월평균 가계소득 증감률, 전월대비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전월

대비 종합주가지수지수 증감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의 선택근거는 다음과 같다.

사전연구에서 남기곤[4]은 인적속성은 미취업 혹은 실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 증감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에 인적속성 보다는 실업률을 하나의 독립 변수로 채택하였다. 그리고 업동욱[5]은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확률이 낮아지고 가구지출이 많아질수록 취업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명 하고 있다. 여기서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과 가구 지출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중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만을 또 하나의 변수로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률도 낮아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선행(경기) 종합지수와 물가로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각각 독립변수에 포함하고 종합주가지수는 우리나라 경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하나만 보면 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립변수로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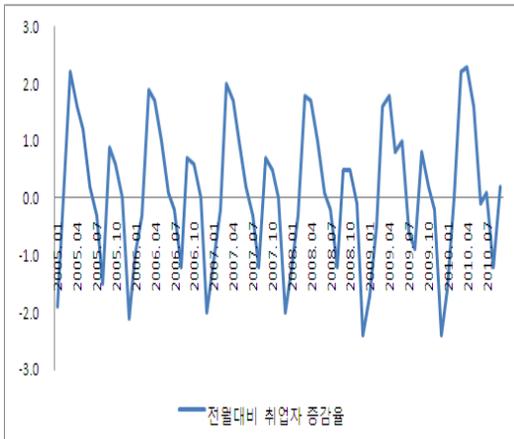


그림 1. 전월대비 취업자 증감률(단위: %)
 Fig. 1. Increase and decrease for percentage of employ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unit: %)

본 연구에서는 2005년 1월부터 2010년 9월 사이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들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사이트[8] 및 한국은행 경제 통계 시스템 사이트[9]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분기별 증감자료는 월별 단위로 확대 해석하여 사용하였다. 종속변수로 사용된 전월 대비 취업자 증감률은 그림 1에 요약되었다. 이 그림에서 취업(증감)율은 높고 낮음의 형태의 특정한 패턴(예를 들면 경제적으로인이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패턴에 영향을 주는 경제지표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II. 실증분석 결과

선택 독립변수의 타당성은 우선 다중 공선의 문제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행렬은 어느 정도 상관이 높은가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0.8을 초과하면 다중 공선성이 있다고 암시한다[10].

본 연구에서의 상관행렬은 표 3에 요약 되었다. 이 표에서 어떤 경우에도 0.8을 초과하는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변수간의 다공선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단위%	실업률 (증감률)	월평균가계 소득증감률	선행경기종합 지수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종합주가 지수 증감률
실업률(증감률)	1				
월평균가계 소득증감률	0.1915	1			
선행경기 종합지수 증감률	-0.0463	-0.0405	1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0.0880	0.2033	-0.0628	1	
종합주가 지수증감률	-0.0868	-0.1195	0.4816	0.1383	1

그리고 SPSS(15버전) 통계 패키지를 이용한 상태지수와 분산비율을 이용한 다중 공선성 결과는 표 4에 요약되었다. 이 표에서 상태지수(Condition Index)의 최대값이 3.077로서 10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다중 공선성(Collinearity)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분산비율(Variance Proportions) 측면에서도 고유벡터가 90% 이상 설명되는 독립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 역시 다중 공선성은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11].

$$\hat{\log} \left(\frac{p_i}{1-p_i} \right) = -0.114 - 0.2391URC - 0.370AMH + 0.494PBC + 1.091CPR - 0.061CSP$$

단, URC: 전월대비실업(증감)율, AMH: 전월대비 월평균 가계소득 증감률, PBC: 전월대비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 CPR: 전월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CSP: 전월 대비 종합주가 지수 증감률.

위 식과 표 5을 통해 검정 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업(증감)율과 전월대비 월평균 가계소득 증감률은 유의수준 1%에서 유의적 이다. 결국 실업(증감)

4. 다중 공선성 진단 결과

Table 4. Collinearity Diagnostics results

Collinearity Diagnostics ^a									
Model	Dimension	Eigenvalue	Condition Index	Variance Proportions					
				(Constant)	실업(증감)률	월평균가계소득증감률	선행(경기)종합지수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종합주가 지수증감률
1	1	2.280	1.000	.06	.00	.01	.06	.06	.04
	2	1.325	1.312	.00	.29	.27	.02	.03	.09
	3	.664	1.624	.03	.02	.05	.01	.05	.14
	4	.732	1.765	.08	.04	.63	.01	.05	.18
	5	.569	2.019	.06	.60	.02	.30	.37	.25
	6	.241	3.077	.77	.00	.03	.59	.44	.29

a. Dependent Variable: 취업자증감률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항은 국내 주요경제지표들이 취업자 증감률과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를 수행한 결과 표 5에 제시하였다. 즉 본 연구의 가설 검정 결과 회귀 식은 다음과 같다.

을 및 월 평균 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사회 경제적으로 실업환경이 조성되면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져 취업 환경에 악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추정되었다.

실업(증감)율 변인의 Exp(B) 값은 0.787로서 이 의미는 실업(증감)율이 1 단위만큼 증가될 때마다 취업자 증감률이 ‘-’일 확률은 0.787배씩 높아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월 평균 가계소득 증감률 변인의 Exp(B) 값은 0.690로서 이 의미는 월 평균 가계소득 증

표 5.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s

		B	S.E.	Wald	df	Sig.	Exp(B)
Step 1(a)	실업(증감)율	-.239	.069	11.883	1	.001	.787
	월평균가계소득증감률	-.370	.121	9.383	1	.002	.690
	선행(경기)종합지수증감률	.494	.632	.610	1	.435	1.639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1.091	.952	1.312	1	.252	2.976
	종합주가지수증감률	-.061	.070	.776	1	.378	.940
	Constant	-.114	.453	.064	1	.801	.892

a Variable(s) entered on step 1: 실업(증감)율, 월평균가계소득증감률, 선행(경기)종합지수증감률, 소비자물가지수증감률, 종합주가지수증감률.

감률이 1 단위만큼 증가될 때마다 취업자 증감률이 ‘-’ 일 확률은 0.690배씩 높아질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선행 경기 종합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긍정적인 영향인자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었다. 즉, 선행 경기 종합지수가 높으면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물가가 높아지면 취업의도가 살아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과 비교했을 때 비유의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증감률도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어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회변인 보다는 가계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변인이 더욱 더 영향력 인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설 1은 “실업(증감)율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라는 가설인데 이 의미는 실업(증감)율이 높아지면 취업자 증감률이 ‘-’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세운 가설이다. 그러나 가설1은 유의하였다. 가설 2는 “월평균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인데 이 의미는 월평균가계소득 증감률이 높아지면 취업자 증감률이

‘-’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세운 가설이다. 이 가설도 유의하였다. 그러나 가설 3은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인데 이 의미는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이 높아지면 취업자 증감률이 ‘+’으로 커질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하여 세운 가설이다. 이 가설은 유의하지 아니하였다.

가설 4인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과 가설 5인 “종합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라는 가설은 유의하지 아니했다. 이 결과는 표 6에 요약되었다.

표 6. 가설 검정 결과
Table 6. Hypothesis testing results

가설 1	실업(증감)율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채택
가설 2	월평균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채택
가설 3	선행(경기)종합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기각
가설 4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기각
가설 5	종합주가지수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	기각

그런데 이러한 제 가설의 기각은 가계경제활동의 결과가 도식적 확실적인 원리에 의해서만 나타는 것이 아님을 새롭게 시사해 준다.

IV. 결론 및 한계

취업자 증감률은 해당 시기의 가계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 자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이러한 취업자 증감률은 가계제반 경제활동요인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변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바람직한 가계경제활동 정도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취업자 증감률도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취업자 증감률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큰 제반 경제활동요인에 대한 다양한 주의와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실업률 및 월 평균 가계소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실업률 및 가계소

득 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악영향을 주는 인자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선행 경기 종합지수 및 소비자 물가지수증감률은 취업자 증감률에 긍정적인 영향인자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었다. 즉, 선행 경기 종합지수가 높으면 취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물가가 높아지면 취업의도가 살아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다른 요인과 비교 했을 때 비유의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 증감률도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 악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비유의적인 인자로 판명되어 취업자 증감률 패턴에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는 않은 변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회변인 보다는 가계에 직접적이고도 실질적인 변인이 더욱 더 영향력 인자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업률이나 가계소득을 안정화시키는 정책 등에 대한 재평가 및 보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취업자 증감률 패턴과 주요경제지표의 영향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변인의 행태를 일부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제반 경제활동 요인의 중요성을 환기하는데 일조하였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이와 함께 여러 가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는 연구일 것이다. 그 중 연구자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취업자 증감률 패턴을 결정하는 경제활동요인은 무수히 많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다룬 주요경제지표 영향의 조사, 분석만으로는 취업자 증감률 패턴의 행태를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비 지출도 취업자 증감률에 결정적 인자이지만 다른 인자와의 다중 공선성 문제로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향후 관련연구의 방향은 위에서 기술한 한계들을 극복하면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으며 정책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실증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 2011, 2, 6. 방문)
- [2]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122001031424033002> (문화일보, 2010, 12, 20. 방문)
- [3] 채창균, 김태기,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분석”, 職業教育研究, Vol. 28, No. 2, pp. 89-107, 2009.
- [4] 남기곤, “청년층 미취업자 특성에 관한 분석”, 산업노동연구, 제 15권 제 2호, pp. 99-12, 2009.
- [5] 엄동욱, “중 고령자의 취업결정요인”, 노동정책연구, 제 8권 제 3호, pp. 17-38, 2008.
- [6] 김희철, “패널 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직업별 취업자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 남서울대학교 논문집, 제 16권 제 1호, pp. 19-32, 2010.
- [7] 이현주, 김희철, “패널 데이터모형을 이용한 지역 별 취업자수 결정요인 추정에 관한 연구”, 디지털산업정보학회 논문지, 제 6권 제 4호, pp. 297-305, 2010.
- [8] <http://www.kosis.co.kr/>(통계청, 2011, 2, 22 방문)
- [9] <http://ecos.bok.or.kr/>(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2011, 02, 19 방문)
- [10] 배병렬, 구조방정식모델 이해와 활용, 대경, pp. 156-157, 2002.
- [11] 김희철, SPSS17과 함께하는 회귀분석입문, 비즈프레스, pp. 380-386, 2010.

김희철(Hee-Cheul Kim)



2002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이학석사)
2008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통계학과
(이학박사)

2005년~현재 남서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 관심분야: 소프트웨어신뢰성공학, 전산통계

저자소개



이현주 (Hyun-Joo, Lee)

2000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2007년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2005년 3월 ~ 2008년 5월 교육연구위원
(재)청소년과 사랑사랑-발달장애청소년

2008년 1월~2009년 12월 나주대학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사회복지정책, 빈곤 정책, 사회보장

발달장애청소년 교육정책